

##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539장 ..... 다함께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 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 도 ..... 맡은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4:15~18 ..... 다함께

<sup>15</sup>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sup>16</sup>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sup>17</sup>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sup>18</sup>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 “네 남편을 불러오라”

2024. 11. 10. 주일예배 설교

## “내 영혼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밝은 면만 보고 싶어 하고, 또 그 밝은 면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반면, 내 안의 어두운 부분에는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어둠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 사함은 생명의 시작이고 입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피어나게 되는 것,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되는 것, 혼자 있을 때에도 생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뿔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 내 영혼의 어둠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게로 내 존재를 터닝(turning)한다는 것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영혼의 실체가 낱알이 드러나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어 한없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반부에서, 바로 이런 대화가 진행됩니다. 목마름에 대한 생수가 영생하는 물 이야기로 전환되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표면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보면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대화가 그렇듯이, 이는 심층의 대화입니다.

※ 빛 되신 예수님게로 향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 “매우 온화하고 따뜻하게, 파고드시는 예수님”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는 이 여인의 인생의 뇌관을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네 번이나 이혼 당했으면서도, 지금은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마주하는 게 싫어서,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 퇴약별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 그녀 인생의 단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상처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그 문제 한복판으로 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온화하면서도, 포용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고, 건네는 말 속에도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매우 온화하고 포용하는 눈빛으로 우리 인생문제에 파고드십니다.

## “예수께서 건네신 말씀에 담긴 의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① 먼저,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시름하는 가련한 인생, 그 상처로 인해 응어리진 아픔, 그로 인해 지은 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② 둘째, 이제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감춰왔던 상처를 꺼내어, 만져주고 싸매주고 치유·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③ 셋째, 이 사람에 대한 미래의 소망까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놓으면, 자신을 뽕뽕 묶어왔던 상처에서 놓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때 영혼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용기 있고 진실 되게 반응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 그 순간, 자신의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아픈 일을 예수님 앞에 오픈하자, 이 여인은 놓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제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여인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늘 가슴 답답했던 여인이, 숨통 트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어, 기뻐 뛰는 인생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 예수님께 온전히 오픈하여 내어놓을 때, 기뻐 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 결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남편, 즉 네 문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것을 다루어 나가자.” 예수님은 탁월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독수리 같은 눈, 사자와 같은 심장, 여성처럼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십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갈무리하시고 아름답게 싸매어 주셔서, 다시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아멘’ 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말씀 나눔

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건네셨던 “네 남편을 불러오라” 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 ① 이 여인을 ○○○ ○○ 계신다는 것
- ② 이 여인을 ○○의 ○로 초대하신다는 것
- ③ 이 여인에 대한 ○○를 ○○하고 계신다는 것

원문 '네 남편' / 1. '남편' / 2. '남편' ①

② 여인에게 “남편” 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자, 자신의 오랜 상처와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남편” 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쉽게 나누기 어렵다면, 나만 볼 수 있는 쪽지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③ 여인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도 다시 말씀 건네 오신다면,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구역원들 앞에서 나누며 결단해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